

역대급 규모 수석박물관 12월 순천에 문 연다

8만9100㎡ 부지에 12개관 꾸며 박병선 관장 40년 모은 명석 전시 땅 매입·공원 조성 등 350억 들여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 등 모색



허석(왼쪽 세번째) 시장과 순천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지난달 30일 수석박물관 조성 부지를 찾아 박병선(왼쪽 두번째) 관장에게 공사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 시민이 평생 일궈온 역대급 규모의 수석박물관이 오는 12월 순천에 문을 연다. 순천시 상사면 옛 미립수목원 자리에 들어서는 순천세계수석박물관은 8만9100㎡(2만7000평) 부지에 1관에서 12관까지 보석관·동물관·식물관·풍경관·기독교관·불교관·폭포관·애로관·숫자관 등 테마별 수석박물관으로 위용을 갖춘다. 박물관 건립은 순천시 사무관으로 퇴직한 후 순천시 의원을 지낸 박병선(71) 관장이 있어 가능하다. 박 관장은 지난 40여년 동안 모은 수석 8000여점에 명석들만 골라 12개의 테마관을 구성했다. 수석 등을 모으는데 들어간 비용만도 180억여원에 이른다. 한 개에 수 십 억원을 웃도는 작품도 있고, 지금은 외부 반출이 금지된 중국 동굴에서 나온 수석만 5m 크기의 중유석들도 자태를 뽐낸다. 아직 정식적으로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의 작품은 지상과 방송에 30여회 방영 될 만큼 이미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조각 작품 300여점, 순천시화인 철쭉 60만주와 300여 그루 관상 수목 등을 비롯해 조경과 300여 개의 조각 공원, 호수와 폭포·자연석으로 이뤄진 공원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 예술공원과 둘레길 4km 구간도 만들고 있다. 진귀한 돌과

땅을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면서 들어간 비용은 자그마치 350억원에 이른다. 현재 공정률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최근 허석 시장과 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박물관 조성 부지에서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관광객 유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순천시는 문화관광 인프라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고, 2023년 개최되는 순천국제정원박람회와 민간의 우수 개방정원을 연계한 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희귀 수석들을 본 공무원들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각종 문양이 새겨진 돌을 직접 봤는데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하다"고 탄성을 자아냈다. 수석박물관과 10분 거리에 있는 1만5000여㎡(4만9500㎡) 부지의 '예술의 상'에도 미술품과 유리공예, 도자기, 다양한 분재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허석 시장은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예술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고 남다른 열정을 알게 됐다"며 "2023년 박람회는 순천시 전역을 박람회장으로 확대하는 만큼 이곳처럼 민간에서 조성한 우수 정원과 시설을 발굴해 박람회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선 관장은 "여수, 전주, 대전, 인천, 서울 등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면서 수석박물관 유치를 수없이 건의했지만 거절했다"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순천에서 개관하게 돼 고항 사랑을 실천했다는 자부심이 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노인의 날 맞아 100세 어르신 '청려장' 전달



곡성군이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올해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들에게 '청려장'을 전달했다. <사진> 청려장은 명아주로 만든 가뽀고 단단한 지팡이로 건강과 장수를 상징한다. 곡성군은 9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37%에 달하는 장수지역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거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3대 거주 효도가정 효행장려금 지급,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고령자 여가활동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청려장을 전달한 유근기 곡성군수는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에 힘써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고흥생강, 유럽 시장 첫 수출길

체코에 생강차 20t 선적

고흥생강이 유럽 시장 첫 수출길에 올랐다. 고흥군은 지난 6일 두원농협유자가공사사업소에서 고흥생강차 유럽(체코) 시장 첫 수출 기념 행사를 가졌다. 생강차는 그동안 재외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에 소규모 또는 구색 맞추기 상품으로 수출됐다. 하지만 이번엔 수출되는 고흥생강차 20t은 유럽 현지 로컬시장에 수출되는 만큼 유자에 이어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의미가 크다. 고흥군은 송귀군 군수를 단장으로 고흥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구성해 2019년 8월 12일간의 일

정으로 체코 현지 마케팅을 실시, 원인터내셔널 등 3개 현지 업체와 120만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왔다. 고흥 유자차는 협약 전인 2018년 6.7t이었던 체코 수출량이 올해 8월까지 103t, 연말까지 150t이 예상돼 22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강차 역시 유자차 현지 시장 공략 성공을 바탕으로 유자차 연계 마케팅으로 고흥 농산물에 대한 체코 현지인들의 신뢰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고흥농산물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kwangju.co.kr



지난 6일 두원농협유자가공사사업소에서 송귀군 고흥군수와 원시현 원인터내셔널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생강차 유럽(체코) 시장 첫 수출 기념 행사 행사가 열렸다. <고흥군 제공>

백신 이상 반응 대처 서비스 광양시 '누구 백신 케어콜'

광양시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신체에서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하는 '누구 백신 케어콜(NUGU vaccine carecall)' 서비스를 도입했다. 광양시는 최근 SK텔레콤과 '누구 백신 케어콜'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인공지능 '누구(NUGU)'가 접종일 기준 3일·7일·14일 3회에 걸쳐 백신접종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종 후 주요 정상적인 면역반응과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법을 음성 대화형으로 안내한다. 접종자와 통화한 내용은 인공지능 '누구'가 이상 반응별로 정리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고, 예방접종 후 시민의 불편함이 무엇인지 관찰해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사회공헌(ESG)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한다. 성재순 광양시 보건행정과장은 "누구 백신 케어콜' 서비스 도입으로 AI가 예방접종자의 이상 반응을 파악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시민의 이상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 8개 보훈단체, 통합현충탑 조속 건립 촉구

여수시장 간담회서 시급성 강조 용역비 추경 편성 시의회서 보류 시는 최근 열린 여수시장-보훈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8개 보훈 단체장은 통합 현충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일량 여수시 보훈단체협의회장과 대한민국 상이군경 여수시지회 김석근 회장 등 15

명과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단체는 통합 현충탑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국군묘지 순국 장병 유가족 주소 찾기 행정 지원 등을 시에 요청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통합 현충탑 건립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제3회 추경안에 편성했으나 여수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최로 통합 현충탑 건립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보훈·안보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여수시는 오는 11월 제5회 추경안에 통합현충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 장소 선정, 규모 및 형태제안, 기존부지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3여 통합정신의 계승과 8개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인 통합 현충탑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자산공원(구 여수시) 현충탑과 선원동(구 여천시) 현충탑 두 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현충일 행사를 양쪽에서 진행하고 있다. 두 곳 모두 접근이 불편하고 장소도 비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 이어서 불편이 뒤따랐다. 여수시는 통합현충탑이 절실하다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단체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순신공원에 연면적 4500㎡ 규모로 통합 현충탑 조성을 추진해 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